

한솔제지,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 참가 국내 첫 30%재생원료 사용한 인쇄용지 생산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 참가했다.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자는 슬로건인 'Me First 2030Green Korea'를 내걸고 203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해 관련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한솔제지는 지난 5월에 열린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 참가한 데 이어 제지회사로는 유일하게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그린경영을 지향하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한솔제지는 현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재생원료를 30%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천연펄프로 만든 고급 인쇄용지와 같은 수준의 친환경용지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가이드책자도 한솔제지의 친환경종이로 제작되었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한솔제지는 '친환경종이를 사용하면 자연이 되살아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스를 제작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한솔제지의 친환경용지인 블루시리즈로 만

들어진 인쇄물을 전시하는 한편, 친환경용지 캐릭터인 개구리 마스크트를 이용해 친환경종이를 알리는 이벤트를 실시해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솔제지의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친환경용지의 존재를 몰랐거나 품질이 기존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사용을 꺼렸던 고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린카드도 참가했는데, 한솔제지는 지난 9월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그린카드'에 한솔제지 임직원 200여명이 단체로 가입하는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한솔제지는 앞으로 친환경용지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용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품의 소비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제지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인쇄용지의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쇄업계와의 공존공생을 강조하는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